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세종시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정원도시 추진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6월 2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정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원 협력 강화 ▲정원분야 행사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 노력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원확대 ▲정원식물 생산 지역 농가의 육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을 활용해 세종시 나성동, 보람동 등 236㎡ 유휴부지에 정원을 조성하고 세종시는 정원을 유지관리 하는 등 민·관·공이 연계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시민 참여형 녹색공간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상택 이사장은 “정원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시민의 삶에 긍정적 가치를 더하는 전환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관점에서 정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정원 생태계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본부 정원진흥실	책임자	실 장	김정민 (044-270-5150)
		담당자	대 리	오정은 (044-270-5162)



1. 6월 24일 세종시청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좌측)과 최민호 세종시장(우측)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6월 24일 세종시청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좌측)과 최민호 세종시장(우측)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